

투데이 칼럼

하노이 북미회담 악몽 재현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났지만, 회담은 파행으로 끝났다. 이번 정상회담은 2019년 결렬된 하노이 북미 회담을 연상시킨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에 의존하는 한국 역시 언제든 트럼프식 강압 외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만남의 시작은 화기애애했다.

하지만 트럼프식 종전 구상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반대 뜻을 표하자 분위기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열자리 밴스 부통령까지 설전에 끼어들었고, 두 사람이 타국 정상을 협공하는 전대미문의 장면이 연출된 다.

회담에 매석한 주미 우크라이나 대사는 절망스러운 표정이다. 외신들은 술만 마시지 않았을 뿐 취객들의 싸움과 다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SNS상에선 ‘젤렌스키의 속마음’이라는 풍자 영상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후 미국은 군사 원조를 전면 중단한다는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고, 결국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발 물러섰다. 상대를 강하



정복규
논설위원

게 압박하고, 쥐락펴락을 반복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은 계속됐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협상은 노딜로 끝난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연상시킨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를 언급하는 등 전면전 가능성을 언급하며 김정은 위원장을 정상회담 테이블에 앉히는 데 성공했다.

역시 회담 초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지만, 미국이 영변 핵시설 이외 5곳의 핵시설 리스트를 전격 공개하며 압박하자 분위기는 반전됐다.

김정은 위원장이 끝까지 영변 핵시설만 폐기하겠다고 고집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협상할 준비가 안 됐으며 판을 깨버렸다.

굿딜 아니면 노딜이었다. 좋은 합의가 아니라면 아예 합의가

없는 것이 낫다는 트럼프 특유의 협상 전략이 이번 회담에서 또다시 재현됐다. 우방국도 힘으로 밀어붙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방식은, 한반도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특히 과거 핵을 포기했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영토를 빼앗기고 미국으로부터도 외면당하는 상황을, 북한은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안전보장 공약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화살은 이제 동아시아를 겨냥하는 분위기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중국의 타이완 침공 문제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이다.

하지만 타이완의 반도체 업체 TSMC가 향후 4년간 미국에 1000억 달러, 약 146조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자 슬그머니 입장을 바꿨다.

취임 뒤 첫 의회 연설에서는, 한국을 록 잡어 우방이 미국에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주한 미군 방위비 대폭 증액과 한미 연합훈련, 미국 전략자산 전개 등에 거액의 청구서를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나아가 주한미군을 대폭 감축하거나, 대중국 견제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성격을 바꾸려고 한다면 한국 안보에도 큰 도전이 될 수 있다.

지금 한미 NOG 차원에서 나왔던 선언적 정책의 공약들이 조금 바뀔 수도 있다.

거기에 사용됐던 용어나 문구들도 바뀔 수 있다. 미묘한 것 같지만 미묘한 차이에서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조금만 바뀌어도 이것이 동맹에 대한 안전보장의 의지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한미 동맹이 미국의 핵심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타이완 사례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끌 만한 경제 지원책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사설

깨끗한 등기로 사기

집을 살 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고 근저당설정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 등기부등본이 위조돼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 현행 제도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 모 씨가 2017년 구입한 어느 주택은 신용협동조합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기록이 있었다. 하지만 모두 위조였다. ‘근저당권’이 말소됐다는 등기부등본을 믿고 사들였다.

하지만 1년 5개월 만에 ‘대출금을 갚은 적이 없고 근저당권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김 씨는 이전 집주인이 서류를 위조해 허위로 등기부등본을 고친 걸 알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경기도의 한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이었던 집주인은 1억 6천만 원 대출을 받았다.

그 뒤 돈을 다 갚았으니 근저당을 말소해도 좋다는 가짜 실험 위임장 등을 꾸며, 법원

에 신고한 것이다. 1심 법원은 서류를 위조한 이전 집주인이 돈을 갚아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2심 법원은 해당 주택에도 ‘근저당권’이 남아 있다고 판결했다.

등기소에서 등기를 접수할 때, 실제 금전 거래, 권리 관계를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는 만큼, 등기부등본도 공신력 있는 문서가 아니라,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다.

나중에 실제적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문제의 집주인은 사기와 변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받고 도주 중이다.

법원이 부동산 등기를 접수하면 행정기관에 진위 여부를 확인하게 하자는 법안이 지난 해 발의됐지만, 논의는 멈춰 있다.

자동차 수출 비상

미국의 상호관세는 눈에는 눈, 관세엔 관세라는 원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백악관이 이번엔 미국에 무역적자를 많이 안겨주는 대표적인 나라 중 하나로 한국을 직접 거론했다.

유럽이나 중국은 이미 미국과 보복 관세를 주고받고 있어서 다음 순서는 한국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81조원, 미국 입장에선 여덟번째로 적자액이 많은 나라인데 미국이 대표적으로 한국에 적자를 보는 품목은 자동차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25%를 공언해온 만큼 한국의 자동차 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미국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미국은 “탄약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거라면, 모든 나라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라고 말한다.

한국산 자동차는 미국을 상

대로 지난해 404억 달러, 58조 여 원 흑자를 달성했다.

미국은 그만큼 손해봤다는 입장이다. 상호관세가 끝내 부과되면, 우리 기업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미국에서 차를 더 만드는 것이다.

현대차는 곧 미국 새 공장 준공을 앞두고 있고, 기아도 미국 내 생산량을 최대치로 늘리겠다고 한다. 이 경우 국내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이 20% 감소할 거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현대차기아가 국내에서 만들어 미국에 팔던 30만 대에서 50만 대, 한국GM은 40만 대 정도가, 미국 수출길이 막힌다는 것이다. 70만 대 내지는 90만 대가 미국으로 수출이 되는 물량이다.

연관 산업까지도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국내의 자동차 부품 업체에선 ‘생존’ 문제다. 관세를 맞음으로써 경영 악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생산 기반이 또 약해질 수 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시진핑, 글로벌 세계 대표들과 회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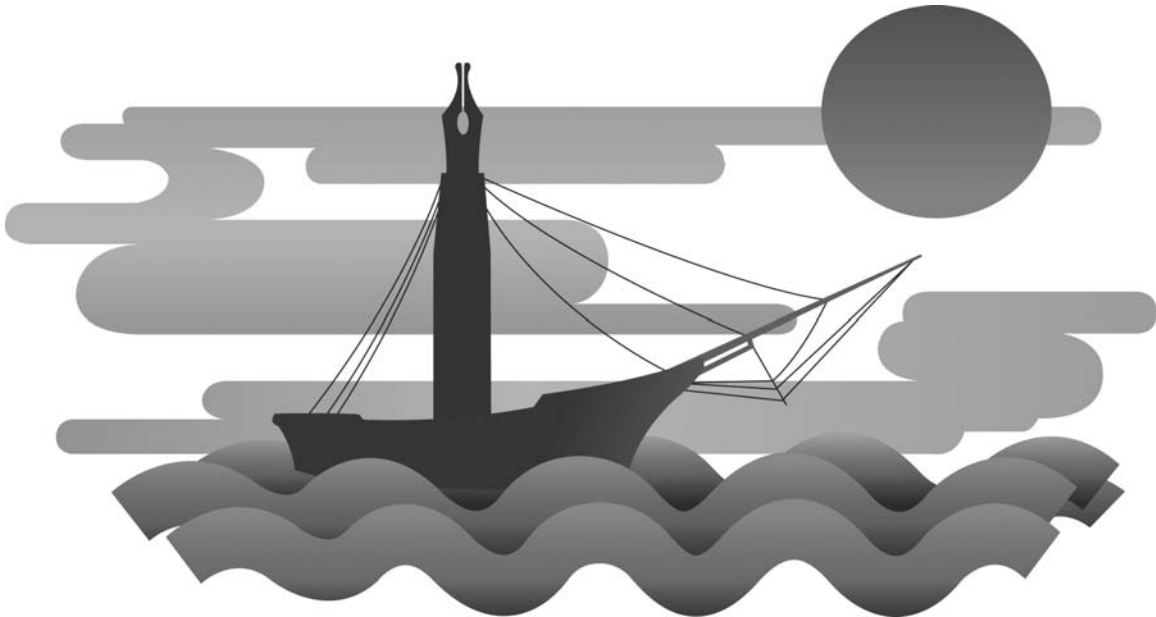
시진핑(왼쪽 두번째)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8일(현지 시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국제공상계 대표 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글로벌기업 최고경영자(CEO) 30여 명이 참석했다.

젤렌스키 “미국, 러시아 상대로 강경해져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27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동맹국들의 ‘의지의 연합’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